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직무환경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Strategies of Itinerant Librarians' Job Environment at Small Libraries

채 희 라 (Hee-ra Chae)**

김 유 승 (You-seung Kim)***

초 록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인력 부재와 운영 부실 등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되어왔다. 이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와 협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0년부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재와 운영 부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순회사서의 열악한 처우와 직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순회사서가 경험하는 작은도서관의 문제점과 직무상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순회사서의 직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과 순회사서에 대해 알아보고, 순회사서와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자료 분석을 통해 '업무권한 부족', '업무 매뉴얼 부재', '소통, 커뮤니티 부재', '통합 운영 체계 미비',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업무 환경 미비', '악성 이용자', '소속감 부재로 인한 고립감' 등 총 17개 의미 주제를 추출하였고, 이를 업무, 조직, 환경, 정서, 사회, 제도 등 6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회사서의 직무 권한 및 기준 규정 정비, 커뮤니티 조직 구축, 고용안정성 보장, 직무교육 강화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hile small libraries have steadily increased in quantity, parts of qualitative growth such as lack of manpower and poor operation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Accordingly,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public libraries and small libraries, the small library itinerant librarians project has been promoted since 2010, and its scal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However, the lack of manpower and poor operation still remain tasks to be solved, and the poor treatment and job environment of itinerant librarians have not improv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small libraries and job problems experienced by itinerant librarian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job environment of itinerant librarians based on this.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small libraries and net companies were investiga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articipants related to itinerant librarians and small libraries. Through interview data analysis, a total of 17 meaning topics were extracted, including 'lack of work authority', 'lack of work manual', 'lack of communication, community', 'lack of integrated operating system', 'poor treatment and working environment', 'malicious user', and 'lack of belonging'. Based on this, four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job authority and standard regulations of itinerant librarians,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organization, job security guarantees, and job education reinforcement.

키워드: 공공도서관, 면담연구, 순회사서, 작은도서관, 직무환경

Public library, Interview Research, Itinerant Librarian, Small Library, Job Environment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2021)을 축약·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heeeera10@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2월 11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3월 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71-94,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071>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시작하는 글

2009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제9528호)을 통해, '문고'를 계승하는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작은도서관은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법률 제11316호)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등에 문고를 설립하도록 개정된 1994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62호)은 2021년 현재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을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이어져(대통령령 제31389호), 작은도서관 확산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실시된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2018년, 6,330개 관, 2019년 6,672개 관, 2020년 7,500개 관으로 지속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0년 조사대상 작은도서관 총 7,500개 관 중 운영이 확인된 곳은 1천여 관이 작은 6,474개 관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15). 이 중 전일제 또는 시간제 직원이 있는 곳은 공립 1,092개 관, 사립 2,899개 관을 포함한 총 3,991개 관이었다. 이는 운영 확인된 작은 도서관의 61.6%로, 나머지 약 40%의 작은도서관은 직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근무하는 작은도서관은 공립 375개 관(24.9%), 사립 300개 관(6%)으로 675개 관에 불과했다.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총 772명으로 1관당 0.1명에 해당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47-49).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안적 해법의 하나로 시작된 것이 순회사서제도다. 공공도서관에 배치

된 순회사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전문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기반 구축과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단기간에 모든 작은도서관에 1관 당 1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순회사서라는 전문인력 지원 제도로 작은도서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순회사서제도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수진, 김유승, 2014, 74).

하지만, 2020년 순회사서를 지원받은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확인된 작은도서관 중 20.5%에 그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63). 아직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순회사서 1인당 2~3개관을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 단기계약으로 인해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의 인력 부재와 관리 소홀 등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순회사서가 도서관 전문직으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환경 개선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순회사서의 직무 경험과 직무 환경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순회사서 처우와 직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개선과 미래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순회사서의 직무 경험 특성을 파악하는 이론연구와 순회사서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연구를 통해, 순회사서의 직무환경

을 분석하고, 순회사서들의 직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지난 10여 년간의 작은도서관 관련 학술 연구 성과는 적지 않다. 운영, 정책, 통계 및 평가 지표, 장서개발 및 평가, 기능 및 역할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룬 50여 편의 학술연구가 문헌정보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 중 문헌정보학 영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적 측면을 다룬 연구는 김영석(2008)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유양근, 박송이(2010), 차성중, 안인자, 윤소영(2012), 조미아, 변현주, 김보일(2013),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2015), 박소희, 정옥경(2016), 노영희 외(2017), 김보일(2018), 장덕현(2018)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김홍렬(2010b), 이승원(2011), 노동조, 박경숙(2013), 김보일, 김홍렬, 이보라(2020), 노영희 외(2020), 최만호, 노영희, 김윤정(2021) 등은 작은도서관의 정책적 영역을 논한 바 있다. 그 외, 작은도서관의 통계 및 평가 지표 등을 다룬 안인자, 윤소영, 차성중(2011), 김보일, 안창호(2018), 김보일, 김홍렬(2021), 이보라(2021) 등의 연구, 장서개발 및 평가를 다룬 박영애, 이재윤(2010), 장덕현(2011)의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를 논한 김홍렬(2011)의 연구가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집중한 양재한(2008), 김윤영, 정은주(2016), 이

성신, 성희자, 이세나(2018)의 연구가 있으며,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을 심층 분석한 김홍렬(2010a), 김유승(2014), 최만호 외(2020)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에서 순회사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부차적 주제로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주된 주제로 다룬 연구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제도를 분석하고, 참여자 면담을 통해 낮은 인식과 지원사업의 비연속성,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도출한 김수진, 김유승(2014)의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에 관한 연구”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의 직무 관점에서 작은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론적 배경

3.1 순회사서의 개념

순회사서는 공공도서관이 급속히 확장되던 19세기 말 미국에서 등장하였다. 급증하는 공공도서관 수에 비해, 사서가 크게 모자랐던 상황에서, 순회사서는 미국 전역의 모든 관중을 넘어 미국 전역을 돌며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지체를 해소하는 활동을 펼쳤다(Passet, 1990, 1).

우리나라 순회사서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가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사서보조원으로 파견한 1999년 ‘초·중·고등학교 사

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부터 사실상의 순회사서제도가 시작되었고(박금희, 1999, 1-4), 2002년 학교도서관 지원 정책에서 공식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순회사서제도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에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장의 필요성과 국가적 도서관 사업을 계기로 도입된 '순회사서'는 법률 또는 학술적 영역에서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22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순회사서는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공도서관에 배치되어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2021).

3.2 순회사서의 직무 환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도서관에 의해 선발된 순회사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작은도서관에 배치된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국 63개 관의 작은도서관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도 53개 관으로 줄었다가, 2020년도 184개 관, 2021년도 195개 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234개 관이 선정되었다. 2021년 자료부터는 각 지역별로 배정된 순회사서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순회사서 지원사업으로 선발된 전국의 총 순회사서는 2021년 270명, 2022년 234명으로 나타났다(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2021). 순회사서 업무는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와 해당 사업 관련 업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먼저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는 도서선정, 수집, 정리, 대출 서비스 등의 운영지원과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 업무 관련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작은도서관 연계협

〈표 1〉 순회사서 직무 환경

근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 순회사서 출근부 및 모바일 근태관리 시스템 사용 필수
임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월 1,914,440원(4대 보험 순회사서 부담분 및 세금 포함) • 방문활동비 최대 월 40만원 추가 지원(일 2만원,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전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에 대해서는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사업기간 내 순회사서 1명당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최대 50만원 지원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선정, 수집, 정리, 대출 서비스 등 • 독서,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 활동 및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 공공도서관 연계: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및 워크숍 참석 • 사업지침, 약정 및 근로계약 준수 • 작은도서관 일일·월별 보고서 작성

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는 사전 교육 및 워크숍 참석과, 사업 지침, 약정과 근로 계약 준수, 작은도서관 일일, 월별 보고서 작성이 있다. 이와 같이, 순회사서의 직무영역은 공공도서관 연계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운영 지원과 실무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지역 내 작은도서관 여러 곳의 지원을 순회사서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순회사서의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짓이며, 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다. 다만, 여러 도서관을 담당하는 순회사서 업무 특성 상 방문활동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에 출장 가는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 2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4. 면담연구

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순회사서의 직무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지역에서 현재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6명과, 전직 순회사서 2명,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관리자 1명, 자원봉사자 1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5주 간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과 비대면 형식의 면담을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88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면담 질문은 순회사서 직무경험을 중심으로

<표 2> 면담 참여자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직위(직무)	근무경력		자격증	면담 유형	면담 소요시간
				순회사서 경력	기타 경력			
참여자 1	20대	학사	사서	9개월	-	정사서 2급	대면	103분
참여자 2	40대	학사	사서	4개월	10개월	정사서 2급	비대면	79분
참여자 3	20대	학사	사서	1년 10개월	대학도서관 2년 3개월	준사서	비대면	85분
참여자 4	60대	석사	사서	1년 8개월	대학도서관 30년 3개월	정사서 1급	대면	79분
참여자 5	50대	학사	사서	1년 1개월	작은도서관 운영자 6년	정사서 2급	대면	180분
참여자 6	40대	학사	사서	5개월	-	정사서 2급	대면	82분
참여자 7	30대	석사	사서	9개월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공공도서관	정사서 2급	대면	102분
참여자 8	40대	학사	작은도서관 관리자	-	작은도서관 관리5년, 사서 7년	정사서 2급	비대면	76분
참여자 9	60대	학사	사서	1년 4개월	공공도서관 9년	정사서 1급	비대면	60분
참여자 10*	60대	-	자원봉사자	-	-	-	대면	30분

* 참여자 10은 개인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았음

면담 참여자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순회사서의 역할, 이용자와의 관계, 작은도서관과 순회사서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최은희, 심지현(2019)의 “지방공기업 공통 직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미경, 한대동(2016)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교사의 직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등을 분석하고 참고하여 구성 및 수정, 보완하였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4.2 면담분석

본 연구는 사전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참여자가 강조하였거나 반복한 내용, 여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사한 면담 자료를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12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후,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속성을 지정하여 의미 단위를 나누고, 통합적 의미로 주제를 구성하여 수정 및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75개의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언급한 참여자와 총 언급된 횟수 순으로 정리한 후, 이 중 5명 이상

참여자의 언급을 기준으로 의미 단위를 재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참여자들에게 다수 언급된 의미는 ‘열악한 근무 환경’, ‘현실 안주, 순응, 체념 적응, 책임감 저하’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순회사서 간 교류 부재’, ‘소속감 부재로 인한 고립감’, ‘사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이어졌다.

이렇게 선정한 의미 단위는 17개 의미 주제로 구분하였다. 17개 의미 주제는 ‘업무권한 부족’, ‘업무 매뉴얼 부재’, ‘소통, 교류, 커뮤니티 부재’, ‘통합운영체계 미비’, ‘열악한 처우 및 근무 환경’, ‘업무환경 미비’, ‘악성 이용자’, ‘소속감 부재로 인한 고립감’, ‘관계자들의 텃세 및 적대감’, ‘현실 안주, 순응, 체념, 적응 및 책임감 저하’, ‘감정노동’, ‘순회사서에 대한 인식 부족’,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지식 부족’, ‘평가’, ‘장서 및 시설 운영 기준의 미비와 부재’ 등이다. 본 연구는 도출된 17개 의미 주제를 순회사서의 직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McGrath(1978), 이종목, 박한기(1988), 김항석, 한광현(1991) 등이 제시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참고하여, 이를 업무, 조직, 환경, 정서, 사회, 제도의 6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표 4> 참조).

<표 3>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항목

1	순회사서 경력, 순회사서로 일하게 된 계기	7	순회사서로서 가장 보람 있거나 소진되었던 부분
2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로서 담당한 업무	8	순회사서 간에 교류가 있는지
3	스스로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의 역할	9	순회사서에 대한 인식(이용자, 직원, 봉사자, 그 외 주변 지인 등)
4	작은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10	순회사서 업무 시에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나 불필요했던 부분
5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지	11	순회사서/작은도서관 관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6	순회사서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12	순회사서/작은도서관 제도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표 4〉 면담분석 범주

요인 범주	의미 주제	의미 요약
업무 요인 (권한, 책임, 업무 연속성, 역할)	1. 업무권한 부족	업무에 대한 일방적 지시, 통보(순회사서 의견 무시 및 거절)
		순회사서가 작은도서관 측(운영자,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의 요구대로 들어주길 바람
	2. 업무 매뉴얼 부재	단기계약직으로서의 한계 -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재
		부당한 업무나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 어려움
조직 요인 (특성, 운영, 구조)	3. 소통, 교류, 커뮤니티 부재	순회사서 간 교류 부재
		시행도서관의 소통 거부 및 무관심
	4. 통합 운영체제 미비	작은도서관 간 교류 부족, 폐쇄성
		지자체, 지역, 운영자, 자원봉사자, 순회사서 역량 등에 따라 운영방식 차이
환경 요인 (보수, 근무 조건, 시설 등)	5. 열악한 처우 및 근무 환경	열악한 근무 환경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6. 업무 환경 미비	순회사서 업무 좌석 미배치
		순회사서 업무 공간 협소
	7. 악성 이용자	성희롱, 성추행, 직접적인 신체 위협
		보복성 민원(구청, 신문고 등) 민원 협박
정서 요인 (소통, 상호작용)	8. 소속감 부재로 인한 고립감	
	9. 관계자들의 텃세 및 적대감	순회사서에게 냉대, 적대적인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공공근로자와의 불화 및 텃세
	10. 사서로서의 정체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순회사서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에서의 역할과 현실의 역할 차이
	11. 현실 안주, 순응, 체념, 적응, 및 책임감 저하	
12. 감정노동	과잉 친절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위기관	
사회 요인 (인식, 편견)	13. 순회사서에 대한 인식 부족	사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 부족
		편한 업무를 한다는 편견
	14.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순회사서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
		주민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 인지 부족
제도 요인 (제도, 정책, 규정)	15.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 지식 부족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식 부족
		도서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16. 평가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 평가제도 부재
		작은도서관 장서 제적 기준 미비
	17. 장서 및 시설 운영 기준의 미비와 부재	작은도서관 폐관 기준 부재

4.3 분석결과

4.3.1 업무 요인: 권한과 범위

순회사서의 업무권한 부족과 업무 매뉴얼 부재는 업무 요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순회사서의 주업무는 대출, 반납, 도서 및 문화 프로그램 보조, 수서, 자료정리 등으로 대부분 자원봉사자들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운영 방식에 조치를 취하거나 조언을 제시할 때, 작은도서관 측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순회사서는 몇 달만 일하고 또 가면 그만인데”라며, 운영방식이나 도서관리 체계의 변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담 참여자 2). 또 다른 면담 참여자는 순회사서제도가 무색해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측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업무의 최종 결정권이 순회사서에 없기 때문이다.

항상 마지막 최종 선택은 그 분들한테 있는 거죠. 가이드를 주긴 하는데, 그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면담 참여자 1)

또한 면담 참여자들은 문서로 명시된 순회사서의 직무와 현장에서 순회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 면담 참여자가 근무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서 등록, 수서작업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작 순회사서인 자신은 자원봉사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사자분들의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 작은도서관에서 처음에 요구하셨던 것도 '대출 업무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아닌 것 같은데, 이 취직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이렇게 일을 하든, 저렇게 일을 하든, 제가 월급을 받는 건 똑같잖아요. [...] 굳이 여기서 내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 딱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면담 참여자 2)

게다가 순회사서에게 주어진 권한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순회사서의 업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순회사서 스스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희박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계약직인데다가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저도 어쩔 때는 대충하게 돼요. 어차피 단기 계약직인데 (웃음) 대충 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 잘못하면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 떼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면담 참여자 6)

이러한 업무 갈등이 순회사서 지원 자체에 대한 거부 의사로까지 표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심부름이나 개인적 업무를 순회사서에게 지시하는 사례를 다수의 면담 참여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2021)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순회사서에게 이동 돌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며,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면담 참여자들은 순회사서 지원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업무 권한과 직무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3.2 조직 요인: 소통과 통합

조직요인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부재와 통합운영체계의 미비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순회사서 대부분은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인 공간에서도 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요. 전혀 안 해, 전혀 안 하고 그냥 ‘어디로 가세요, 언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만 할 뿐이에요. 필수적인 일 이외의 소통은 안 해요. 거기서 소통을 원하지도 않고 [...] (면담 참여자 9)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업무효율의 저하는 물론, 조직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순회사서들은 이와 같은 조직 소외감을 해소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순회사서의 업무 특성과 순회사서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공동체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해 연도에 선발된 전국의 순회사서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면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지

역이나 공통분모가 있는 순회사서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한 지역의 경우, 순회사서들과 작은도서관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어 실제로 업무 시에 순회사서-순회사서, 순회사서-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끼리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작은도서관마다 상주 사서를 두고 순회사서를 추가적으로 선발하여 순회사서 제도를 두고 있었으며, 구청에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전담부서를 통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들의 프로그램들을 관리 및 홍보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에는 상주 전문 인력이 없었다. 시행 도서관과 순회사서 간의 교류가 거의 없고, 시행 도서관은 순회사서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순회사서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한 경우가 있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편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자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주민들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외부인의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제작년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진행해서 [...]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거부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도서관에 우리 아파트 입주민으로 돈으로 산 책들을 외부 도서관으로 다른 아파트 입주민한테 빌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면담 참여자 8)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개방성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폐쇄적 공간이 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적 특성, 운영자, 자원봉사자, 순회사서 역량 등에 따라 운영 방식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우 상이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나 장서의 품질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는 허다하다. 심지어, 같은 도서관을 이용하더라도 자원봉사자에 따라, 카드발급, 가족회원관리, 반납처리기한 등이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동료들 간에도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통합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해요. [...] 이용자들의 눈에는 당연 똑같은 구립도서관이에요. 카드를 한 장으로 구립도서관 7곳, 작은공공도서관 14군데에서 다 쓸 수 있고, 상호대차도 다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따라서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돼요. 어느 동은 구립도서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대로, [...] 어느 동은 이용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계속 생겨요. '어느 동에선 해주는데 왜 너네는 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좀 심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 동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게, 자기 편의대로 운영하는 게 문제죠. (면담 참여자 1)

4.3.3 환경 요인: 업무 환경 및 처우

환경 요인 측면에서 순회사서의 처우와 근무 환경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이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순회사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업무상 필요한 컴퓨터, 서가, 비품 등이 제때 제공되지 않아 여러 면담 참여자들이 개인 노트북을 소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 면담 참여자의 경우 개인 비용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구매하여 기증한 사례도 있었으며, 기본적인 비품도 개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실 컴퓨터 좀 이용해서 수서 작업도 하고, 라벨 작업도 하고 [...] 눈치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 그래서 그분(관리소 직원)들이 일 안 할 때 가서 프린트 작업하고 그랬어요. [...] 1년이 지나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활성화 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 내 돈으로 샀어요. (면담 참여자 9)

비품뿐만 아니라 순회사서들은 기본 업무 공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순회사서들은 업무 시 데스크 좌석에 앉을 때는 자원봉사자의 착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편이었고, 자리가 없을 때는 일반 열람석에서 업무를 한다. 시행도서관에서 업무를 할 때는 사무실 좌석 부족으로 인해 서적 창고에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고정 좌석의 부재는 순회사서들의 안정적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었다.

좌석도 PC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앉기는

하죠. 제가 가면은 봉사자분들 옆에 앉고, 만약에 그 봉사자분이 PC를 써야 되면 제가 이제 그 옆에 앉거나. 그러니까 이게 딱 제 자리는 아닌 거죠. (면담 참여자 2)

작은도서관에 보통 대출, 반납하는 업무 자리가 한 두 자리씩 있어요. [...]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두 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용자들이랑 같이 앉아 있기도 했어요. (면담 참여자 7)

순회사서들이 자원봉사자들보다도 불안정한 업무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은 순회사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원활히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순회사서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등을 경력으로 가진 한 면담 참여자는 단기계약직 신분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면담 참여자 7).

순회사서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이외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용자가 “데이트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속 가까이 와서 터치를 하려고 하고, [...] 그 다음에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또 은근슬쩍 만지려고 하거나 불쾌한 시선을 던지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한 면담 참여자는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했다. 또 한 면담 참여자는 운영방식에 대한 조언한 마디에 1년 간 욕설과 반복되는 민원에 시달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 운영자분은 도서관을 너무 좋아하시다보니

작은도서관이 자기 공간이 된 거예요. [...] 이용자들이랑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술 드시고 전화를 하셔서 민원을 넣는다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시고, 욕을 하시고, 거의 1년 정도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면담 참여자 8)

4.3.4 정서 요인: 감정노동

순회사서들은 직무 현장에서 여러 정서적 요인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중 면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느꼈던 정서 요인은 소속감 부재였다. 순회사서들은 현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 속해있지만, 시행 공공도서관에서 순회사서를 선발하고, 여러 작은도서관에서 순회하면서 근무하다 보니 어느 곳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며, 자신들을 ‘떠돌이, 낙동강 오리알’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무나 일정 전달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는 순회사서가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전에] 공공 도서관에 출근을 하고, 오후에 작은도서관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작은도서관도 제가 메인으로 한 군데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떠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 심정이 딱 그 말이 맞아요. (면담 참여자 2)

재단 소속이라 근무할 시행도서관으로 파견되는 방식이었어요.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시행도서관에서는 담당자를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

은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작은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서관 사무실에는 여유 자리가 없어서 저는 문헌정보실에서 혼자 근무했어요. 혼자라 편하기도 했지만 책들이 쌓여있는 창고 같은 곳이라 [...] 낙동강 오리알 같았어요. (면담 참여자 7)

상주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순회사서가 작은도서관에 파견되면 협력하기보다는 근무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변경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내고 따돌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한 경우 순회사서 지원을 취소하거나 순회사서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분들 중에 저한테 굉장히 적대적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순회사서 안 와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보내는거냐며 감시하러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도 반기지도 않으시고 저랑 말도 잘 안 섞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는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면담 참여자 7)

어느 도서관은 순회사서 지원을 반겨 하는데 어느 도서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는데 너희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거리를 두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 순회사서 선생님께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면담 참여자 8)

보통 대출, 반납 자료실에서 앉아있는데, 자원봉

사 선생님들이랑 시간이 겹칠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눈치보여요. 그럼 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제 노트북으로 업무보기도 해요. 저랑 겹치는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관장님한테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따로 앉아 있거나, 그 시간을 피해서 갈 때도 있어요. (면담 참여자 1)

또 다른 참여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지시를 작은도서관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받아들이다 보니, 어느새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에 회장이 계시는데 가끔 회장님 손님이 작은도서관으로 오셨어요. 회장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저한테 손님이라 이야기 좀 나누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회장님한테 미운털 박혀봤자 저만 괴로우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 타드리곤 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속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그 외에도 업무랑 상관없이 물건 같은 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시면 그냥 다녀왔어요. (면담 참여자 7)

소속이 불분명한 외중에, 거의 대부분의 직무환경에서 '을' 입장에 놓인 순회사서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

저는 순회사서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하고 참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 이게 자리가 감을 관계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없던데요, 방법이. (면담 참여자 5)

이외에 도서관 외부좌석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상황 설명과 이용 안내를 드리며 음식물 섭취 제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반발하고 구청과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구청 직원이 되려 순회사서를 닦으며, 이용자에게 더 친절히 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순회사서는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큰 중압감을 느끼며, 이후 자기 검열을 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구청에 팀장님이 오셔서 '조심해라.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용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인 검열을 계속 해야 했어요. 그 한 번의 사례 때문에 모든 도서관에 조심하라는 내용의 공문 아닌 공문이 내려갔었죠. [...]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포기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면담 참여자 3)

시행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을 순회사서의 '강요된 친절'로 해결하고자 하여 순회사서가 감정노동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Morris와 Feldman(1996)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계획, 통제 등으로 이러한 감정부조화가 노동자에게 지속적이며 강한 역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감정소진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는 순회사서의 관점

에서 이용자와의 상호관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낮은 자아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고갈을 경험하게 한다. 정신적 고갈 경험 유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더불어 동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박영배, 안대회, 이상우, 2009, 860). 이처럼 순회사서는 이용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4.3.5 사회 요인: 이해와 인식

사회 요인 측면에서 면담 참여자들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서 및 순회사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 면담 참여자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스스로 사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외부에 사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걸 수차례 목격하였다고 털어놓았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사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본인 소개할 때 '작은도서관 사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서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자격증인데 '자격증 없이도 도서관 업무를 잘하니 순회사서랑 똑같이 우리도 사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능숙한 부분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한편으론 사서 자격증을 쉽게 여기시는 거 같아 속상하기도 해요. (면담 참여자 7)

작은도서관에 월급을 따로 받는 사서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서라고 인사를 하셔서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전공자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공공근로 경험이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면담 참여자 2)

같은 맥락에서 ‘순회사서’나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모르는 이용자들을 만나는 일은 흔한 일상이다.

일단 주변에서 순회사서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사서 자체도 편한 일을 한다는 편견이 있고요. 사서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순회사서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잘 모르세요. [...] 주민센터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 작은도서관이란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말씀을 좀 험하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고 안내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면담 참여자 3)

4.3.6 제도 요인

면담 참여자들이 경험한 작은도서관은 운영자나 자원봉사자가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본적인 도서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구립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분류, 편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느꼈다. 한 면담 참여자는 이처럼 장서관리 부문에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가 투입되어 체계를 잡아주고 인

식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자들이 아예 독서 문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체계를 일단 잡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고, [...]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면담 참여자 3)

보통 작은도서관이 장서 관리는 안 되어 있거든요. 청구기호의 개념조차 모르는 곳들도 정말 많아요. 청구 기호로는 되어 있는데 서가 배가 상태가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작은 도서관 평가 항목에 주제별 배가가 되어 있는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인식을 개선해주는 게 순회사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면담 참여자 8)

이외에 아파트 도서관의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어, 도서관 평가에 아파트 자체 지원 항목이 있다면 관계자들의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저희 시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한 곳 있어요. 거기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서, ‘아파트에서 지원을 얼마나 잘 해주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들어간다면, 아파트 입주자, 관계자들이 더 많이 지원해주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담 참여자 8)

장서 제적 기준과 작은도서관의 개관, 폐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 면담 참여자도 있었다. 일정한 기준 없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책들이 폐기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는 의견을 주었다.

도서 제적률이 보통 3%에서 많아야 5%잖아요. 전에 제가 간 작은도서관에서 [한꺼번에] 2천5백 권을 뺐어요. 제적 리스트를 보면서 아깝기도 하고, [...] 작은 도서관이어도 있어야 되는 도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구는 작은도서관 제적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물어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면담 참여자 5)

작은도서관의 폐관 기준이 부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폐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영 불가능 상황이라도 운영자의 폐관 신고 없이는 폐관이 불가능하다. 한 면담 참여자는 문조차 제때 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이 바르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작은도서관의 폐관 기준 마련과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3.7 개선 방안 의견

면담 참여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교류였다. 한 면담 참여자는 시행도서관의 소통 방식에 따라 업무 만족감에 차이가 있었다며, 시행도서관에서 일방적인 지시를 받

았을 때보다 업무에 관해 직접적으로 소통했을 때, 순회사서로서의 직무만족감을 느꼈다고 밝혔다(면담 참여자 5).

다른 면담 참여자는 순회사서에게 정규직 수준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 계약직 신분의 순회사서가 시행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며, 정규직 순회사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담 참여자 7).

반면, 순회사서의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또 다른 면담 참여자들은 순회사서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넘어, 순회사서 지원 사업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 사업의 연속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순회사서를 잠깐 오다 안 올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인과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행 10개월 남짓의 시간으로는 작은도서관 업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회사서가 작은도서관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기대한다면, 고용안정성과 업무연속성을 보장하는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면담 참여자 3, 면담 참여자 6).

직무교육도 또 다른 이슈였다. 처음 순회사서를 경험한 면담 참여자와 기존의 순회사서 경험이 있는 면담 참여자 모두 순회사서 직무교육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순회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업 개시 전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진행 중에 투입되는 순회사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수의 면담 참여자들은 현행 교육 내용이 작은도서관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작은도서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업무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면담 참여자도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업무 지침을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어 사용되지 않는 지침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면담 참여자들은 시행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여러 주체에 대한 순회사서의 역할과 업무를 정확히 지시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침이 수립되고, 공유된다면, 순회사서의 업무 및 감정노동을 경감하고 업무 성과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5.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직무환경 개선방안

앞선 이론 연구와 면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4가지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업무 요인 측면에서 순회사서의 직무 권한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순회사서의 업무는 사업공모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안내되고 있다. 심지어, 순회사서에게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요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면담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명시된 직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받거나, 자원봉사자가 순회사서의 직무를 결정하는 일은 일상

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순회사서에게 제공되고 있는 업무 지침은 원칙보다는 융통성 있는 도서관 운영을 내세우는 일부 시행도서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단기 계약직 신분인 순회사서의 직무 역량을 한층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순회사서의 직무 권한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실효성 있는 업무 지침 수립이 시급하며, 현장에서 업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직간접적인 정책적, 행정적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조직 요인 측면에서 순회사서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들은 업무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얻거나 정서적 지지가 가능한 커뮤니티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매년 선발되는 순회사서의 수는 매우 적은 규모이며, 그나마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 이 중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인원의 약 1/3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순회사서들의 커뮤니티 조직 건설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 정서 요인 측면에서 순회사서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사서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순회사서 지원 사업 역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순회사서들은 10개월의 짧은 계약기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시적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업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순회사서 개개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순

회사서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면담 참여자들은 순회사서의 고용안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과 업무 지속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순회사서의 정규 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순회사서를 직접 고용한 선례를 모범으로 삼아, 기초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 수 또는 잠재적 이용자 수에 비례하는 일정 규모의 순회사서를 정규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회, 제도 요인 측면에서 순회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현장 투입 전 실시되는 순회사서의 직무교육은 상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순회사서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1~2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 순회사서 사업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역시, 순회사서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을 나타내는 사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순회사서사업 담당 공무원, 시행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담당자,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등 순회사서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순회사서제도를 이끌어가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순회사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 작은도서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6. 맺는 글

우리가 직면한 순회사서제도의 문제는 거시적으로 법률, 제도 그리고 정책의 미비점과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비판과 근본적 재검토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도서관 생태계에서 확장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는데 있어 순회사서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순회사서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도서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중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순회사서제도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순회사서사업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전체 작은도서관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나마, 현장에 투입된 소수의 순회사서는 소통과 소속감의 부재 속에 조직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불안정한 업무환경을 감내하여야 하며, 권한의 한계와 이에 따른 업무의욕이 저하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자 하였다. 면담연구를 통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의 직무환경을 분석하고, 순회사서들의 목소리를 담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순회사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발전시키는 논의를 위한 작은 행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김보일 (2018).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5-34.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005>
- 김보일, 김홍렬 (2021). 작은도서관 평가체계 및 지표 개선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4), 25-46.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157>
- 김보일, 김홍렬, 이보라 (2020).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3), 157-175.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157>
- 김보일, 안창호 (2018).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 개선에 관한 지표 기초연구. 김보일 외 편, 작은도서관을 들여다보다: 2017 작은도서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16-107.
-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 (2015).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31-5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031>
- 김수진, 김유승 (201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59-7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4.059>
- 김영석 (2008).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429-448. <https://doi.org/10.16981/kliss.39.2.200806.429>
- 김유승 (2014).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81-410.
<https://doi.org/10.4275/KSLIS.2014.48.3.381>
- 김윤영, 정은주 (2016).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559-578.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559>
- 김항석, 한광현 (1991).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산업개발연구, 10, 83-104.
- 김홍렬 (2010a).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91-209.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191>
- 김홍렬 (2010b).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와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77-98. <https://doi.org/10.16981/kliss.41.1.201003.77>
- 김홍렬 (2011).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51-67.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51>
- 노동조, 박경숙 (2013).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71-18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1.171>
- 노영희, 최만호, 김윤정, 장로사 (2020).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3), 71-9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3.071>
- 노영희, 한문성, 이근화, 최만호 (2017). 서울시 작은도서관의 자치구별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제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121-158.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6.121>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21. 6. 14.). [공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및 협조 요청. 출처: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929>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0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박금희 (1999). 초중고등학교 사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을 통해 본 학교도서관. 도서관문화, 319, 30-35.

박소희, 정옥경 (2016).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9, 7-42.

박영배, 안대회, 이상우 (2009). 호텔기업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2), 853-864. <https://doi.org/10.5392/JKCA.2009.9.12.853>

박영애, 이재윤 (2010). 대출 및 상호대차 통계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장서 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333-356. <https://doi.org/10.4275/KSLIS.2010.44.2.333>

안인자, 윤소영, 차성중 (2011). 작은도서관 통계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75-393.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375>

양제한 (2008).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7-52. <https://doi.org/10.16981/kliss.39.3.200809.27>

유양근, 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75-19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1.175>

이성신, 성희자, 이세나 (2018).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 대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77-97.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12.77>

이승원 (2011).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23-241.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23>

이종목, 박한기 (1988). 직무 스트레스 척도제작에 관한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1), 241-262.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3973호.

장덕현 (2011).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03-221.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03>

장덕현 (2018).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과 과제: 부산광역시 K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73-91. <https://doi.org/10.16981/kliss.49.4.201812.73>

정미경, 한대동 (2016).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교사의 직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7(3), 1-28.

조미아, 변현주, 김보일 (2013). 운영진단을 통한 유형별 작은도서관 사례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

- 회지, 47(2), 293-314. <https://doi.org/10.4275/KSLIS.2013.47.2.29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411호.
- 차성중, 안인자, 윤소영 (2012).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153-1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1.153>
- 최만호, 노영희, 김윤정 (2021). 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제안을 위한 운영자 인식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1), 1-23.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1.001>
- 최만호, 노영희, 장로사, 김윤정 (2020).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187-212.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187>
- 최은희, 심지현 (2019). 지방공기업 공통 직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교육연구, 39, 22-48.
-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2021. 12. 9.). [안내] 『2022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시행 공공도서관 모집 안내. 출처: <http://www.klib.or.kr/contents/sub/sub04.html>
- McGrath, J. E. (1978). Stres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In Ma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New York: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Morris, J. A. & Feldman, O. C. (1996).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986-1010.
- Passet, J. E. (1990). 'Order is heaven's first law': itinerant librarians and bibliographic control, 1887-1915. The Library Quarterly, 60(1), 23-4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 J., Yoon, S. Y., & Cha, S. J. (2011). A study to improve the statistical indicators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375-393.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375>
- Cha, S. J., Ahn, I. J., & Yoon, S. Y. (2012). A study on nationwide survey and analysis of operating small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153-1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1.153>
- Chang, D. H. (2011). A descriptive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es in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03-221.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03>
- Chang, D. H.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operation of public small libraries in k district

-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73-91.
<https://doi.org/10.16981/kliss.49.4.201812.73>
- Cho, M. A., Byeon, H. J., & Kim, B. I. (2013). A case study on measures to revitalize small libraries of the type through operational diagnost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93-314.
<https://doi.org/10.4275/KSLIS.2013.47.2.293>
- Choi, E. H., Shim, J. H.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ommon job experience in a local public organization: for facility management general office workers.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39, 22-48.
- Choi, M. H., Noh, Y. H., & Kim, Y. J. (2021). A survey and study on operator's awareness for a suggestion of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Gwangmyeong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1), 1-23.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1.001>
- Choi, M. H., Noh, Y. H., Chang, R. S., & Kim, Y. J. (2020).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mall library ordinance in Gyeonggi-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187-212.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187>
- Jung, M. K. & Han, D. D. (201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classroom experiences of teachers in charge of caring class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Association for Adult & Continuing Education*, 7(3), 1-28.
- Kim, B. I. & Ahn, C. H. (2018). A basic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Kim, B. I. et al. ed. *Look into a small library: 2017 Small Library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Kids and Small Library Association, 16-107.
- Kim, B. I. & Kim, H. R.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mall library evaluation system and indica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4), 25-46.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157>
- Kim, B. I.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small library oper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5-34.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005>
- Kim, B. I., Jo, M. A., & Byeon, H. J. (2015). A study on promotion of small libraries through an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ir 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31-5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031>

- Kim, B. I., Kim, H. R., & Lee, B. R. (2020).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157-175.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157>
- Kim, H. R. (2010a). Analytical study on the ordinance for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91-209.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191>
- Kim, H. R. (2010b). Analysis and solution of small libraries in Jeon-buk provi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77-98. <https://doi.org/10.16981/kliss.41.1.201003.77>
- Kim, H. R. (2011). Analytical study o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f administrators in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51-67.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51>
- Kim, H. S. & Han, K. H. (1991).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job stress. *Industrial Development Review*, 10, 83-104.
- Kim, S. J. & Kim, Y. S. (2014). A study on the itinerant librarian at smal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4), 59-7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4.059>
- Kim, Y. S. (2008). A study on building a small-size public library in the area of the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 complex: a case study of J apartment complex in Seou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429-448. <https://doi.org/10.16981/kliss.39.2.200806.429>
- Kim, Y. S. (2014). A study on legal issues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381-410.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381>
- Kim, Y. Y. & Jeong, E. J. (2016). The role and function of small community library for foreig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559-578.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559>
- Lee, J. M. & Park, H. K. (1988).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job stress (1).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4(1), 241-262.
- Lee, S. S., Sung, H. J., & Lee, S. N. (2018). Small libraries as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atti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77-97.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12.77>
- Lee, S. W. (2011). A stud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analysis on the

- ordina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23-241.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23>
- Libraries Act. Act No.17706.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20 Small Library Operation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ask Force on Library Policy (2021, June 14). [Official Document] Information on the Scope of work of the Small Library Itinerant Librarian and Request for Cooperation. Available: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929>
- Noh, D. J. & Park, K. S. (2013). A study on the vitalization methods of small libraries using dona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71-18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1.171>
- Noh, Y. H., Choi, M. H., Kim, Y. J., & Jang, R. S. (2020). A study on the policy proposal for the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the residential communities in Gyeonggi-d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3), 71-9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3.071>
- Noh, Y. H., Han, M. S., Lee, K. H., & Choi, M. H. (2017).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developmental direction for small libraries in Seoul by autonomous distri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121-158.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6.121>
- Park, G. H. (1999). The school library through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ibrarian assistant's placement and utilization' business. *Library Culture*, 319, 30-35.
- Park, S. H. & Jeong, O. K. (2016). A study on improvement of op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Incheon c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9, 7-42.
- Park, Y. A. & Lee, J. Y. (2010). An experimental study on small library collection evaluation utilizing circulation statistics and interlibrary loan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333-356.
<https://doi.org/10.4275/KSLIS.2010.44.2.333>
- Park, Y. B., Ahn, D. H., & Lee, S. W. (2009). Influence of emotion labor on job stress and burnout for the hotel employe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12), 853-864. <https://doi.org/10.5392/JKCA.2009.9.12.853>
- Promotion of Small Libraries Act. Act No.13973.
-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etc. Presidential Decree No. 32411.
- The Korea Library Culture Promotion Agency (2021, December 9). Guidance on Recruiting

Public libraries to Implement the “2022 Small Library Itinerant Librarian Support” Project.
Available: <http://www.klib.or.kr/contents/sub/sub04.html>

Yang, J. H. (2008). A study on the processes of small libraries changing sociological role and its direction of movement in Mas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7-52. <https://doi.org/10.16981/kliiss.39.3.200809.27>

You, Y. K. & Park, S. Y.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small libraries: focus o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1), 175-19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1.175>